



현대는 정보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정보는 곧 가치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은 제품과 가격의 것만이 아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보에서 앞서야 한다. 기술인에서 관리자로의 변신, 그렇다! 25시를 뛰는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한다.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그들은 정보 사랑꾼임을 자칭한다.

25시를 뛰는 사람들

김재형

썬메리제과

‘휘셀(프랑스빵)제조 기술의 1인자’ ‘행정학사’ ‘기술 담당 매니저’ ‘제빵 기술 정보맨’ 등등.

이런 화려한 네임 벨류를 지닌 썬메리제과의 김재형(39) 과장은 오늘도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76년 서울 경신고 졸업, 그러나 여의치 않은 집안 사정상 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곧 바로 취직을 결심한다. 처음 입사한 곳은 의류 전문업체인 삼도물산이었다. 그는 거기서 영업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그때가 77년, 졸업한지 1년 후였다. 중·고등 학교 시절부터 신문 돌리기, 막노동 등을 통해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번은 신문돌리기로 번 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습니다. 종로 기독교 회관 앞이었을 겁니다. 그 앞을 지나다가 그만 강패들에게 그날 일당을 몽땅 빼앗겼죠. 그때의 참담함이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던 그였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에 사회의 뼈저린 현실을 맛보게 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학력차별은 그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다. 대학졸업생과 고교졸업 출신은 임금에서부터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에 열중할 무렵, 그에게도 입대영장이 날아온다. 군대생활을 무시하 마치고 그는 곧 복직하기에 이르지만 자신의 처지와 장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친애하는 제과인 여러분”

그는 우연히 한 미국 잡지에서 연설문을 읽게 된다. 당시 미국 군인들이 이용하던 유도장에서 유도를 배우러 다니던 터라 미국 문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그 연설문을 읽던중 ‘친애하는 제과인 여러분’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그 글을 읽고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제과 종사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미개척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제과·제빵업이 전망이 밝다고 확신하게 되고 이는 사람의 소개로 업계에 투신하게 된다. 그가 첫발을 디디게 된 곳은 프라자제과였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배우는 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뭣든 열심히 배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베타적인 분위기는 적응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였고, 서로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엔 무척 고전하였죠.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 철저한 제품관리를 위해 그는 몸을 아끼지 않는다.

당시 그는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일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도 먼저 잡는다.' 라는 평범한 진리가 그에게도 작용했음이다. 그곳에서 제과 기술 학원도 다니게 됐고 점차 모든 것에 익숙해져 갔다.

나에게 찾아온 세 번째 기회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한다. 드디어 그에게도 세 번째 기회가 왔다. 바로 썬메리제과 입사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좀더 낡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실험과 분석 그리고 그것을 자료화하여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나갔다. 그는 썬메리제과 창업 멤버이기도 하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 삶에 대한 회한을 한가지 씩 가지고 있다. 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대학 진학을 결심,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에 원서를 넣게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이 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자신의 발을 일궈 나간다. 그의 집은 인천, 썬메리제과 본사가 있는 성수동까지는 1시간40여분 걸린다. 그는 이 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 전철 안이 그의 공부방이었다. 무거운 대학교재를 들고다니며 그 먼 거리를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듣기 위해 저녁 이후

시간은 언제나 라디오 앞에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갔다. 한 마디로 주경야독의 생활이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작년 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에겐 너무나 소중한 대학 졸업장이 두손위에 주어진 것이다.

굳이 행정학과를 택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기술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기술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이라면 자신의 분야는 물론이고 다방면에 걸친 지식의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죠. 곧 공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제 기술인도 과거와는 달리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경제, 경영도 결국은 행정이 기초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행정학과를 택하게 된 것이죠.”


한
의
말이
환의
다.

그는 소위 '테크노 매니지먼트' 혹은 '기술과 관리의 결합'을 주장한다. 그 자신 또한 테크노 매니저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기술자에서 관리자로의 변신', 요즘 그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잡티 하나없는 현실의 방바닥을 위해

최근 국내 우수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가치창출'을 부르짖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운사이징이니 벤치마킹이니 니치마킹과 같은 경영 전략은 모두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에게 그 역점을 둔다. 전략의 대상 역시 인간이다. 그 역시 이를 위해 사원 재교육에 열성적이다. 거의 한달에 3분의 1을 재교육을 위해 투자한다. 끊임없는 실험과 분석이 뒷받침된 그의 노하우는 과히 기술적 액기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이러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책을 내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제품공정 관리라든지 생산성 향상, 생산 기계의 감가상각비 절감, 각 가맹점에 대한 기술 자문, 제품의 표준화 등이 그가 담당할 일이다.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는 노재화 이사이하 동료 직원들의 도움도 컸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가 그에게 추진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주위에서 그는 노력형의 인물이라 평판이 나왔다.

32세때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지 한달 만에 동갑내기인 지금의 부인과 백년해로를 기약한 김재형 씨. 우리들은 집 방바닥을 결코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방바닥은 과거의 깊은 반성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 설정으로 잡티 하나 없는 바닥으로 이뤄 갈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베이커리 전문인으로서 한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음이다.  <글/강영주>

